한국의 보물, 해인〈45〉

대원군의 천주교인 박해

흥선대원군이 집정할 때 천주교인을 박해한 일은 역사적 사실이다. 대원군은 고종 3년(1866)부터 고종 8년(1871)까지 6년 동안에 걸쳐 천주교를 박해하였다.

대원군이 주도한 천주교 박해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아라사인(俄羅斯人)의 침입을 물리치려는 문제로 일어난 병인년(丙寅年, 1866) 봄의 박해이고, 제2기는 프랑스 함대(艦隊)의 침입으로 일어난 병인년(1866) 가을과 겨울의 박해이고, 제3기는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南延君)의 묘(墓)가 독일인 오페르트와 이들을 인도한 천주교 신부에 의해 도굴당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무진년(戊辰年, 1868)의 박해이고, 제4기는 미국 함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신미년(辛未年, 1871)의 박해다.

당시 순교한 천주교인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8천 명 설, 수천 명 설, 1만 명 설, 2만여 명 설 등이 있다. 당시 조선 천주교인의 총수가 2만 3천여 명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과장이 있음이 틀림없다. 다만 그 박해의 정도가 심했음은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유홍렬(柳洪烈)은 『고종치하(高宗治下) 서학(西學) 수난(受難)의 연구』(1962)에서 1870년까지 이미 8천여 명의 천주교인이 학살되었으며, 여기에 신미년(辛未年)에 희생된 천주교인의 숫자를 합치면 적어도 1만 명의 천주교인이 학살되었다고 주장한다.

해인(海印)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적 비극인 천주교인들의 순교 사건을 주동자인 대원군이 비결을 잘못 풀이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해인신앙은 천주교인 학살사건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종교적으로 승화하여, 장차 해인(海印)을 지닌 진인(眞人)이 출현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라는 희망으로 대치하였다.

현대적 신무기인 해인

한편 해인을 현대적인 신물(神物)로 보는 견해도 있어서 주목된다. 최수정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소두무족(小頭無足)을 화자(火字)로 해석하는 모양인데, 감결(鑑訣)에 "적시여산(積尸如山)이니, 인영영절(人影永絶)이니, 유혈성천(流血成川)이니, 계견무성(鷄犬無聲)이라."하니, 원자탄(原子彈)을 연상하는 모양이다. … 그런데 이 원자탄을 실은 비기(飛機) 추락(墜落)에 대한 전광발명(電光發明)을 연구 중이라는 일설도 전문(傳聞)하거니와, 더욱 흥미 있는 일은 정만리(鄭萬里)가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에 비장(秘藏)된 대장경판(大藏經板) 육천오백여권(六千五百餘卷) 십칠만여면(十七萬餘面)을 출판하는 척하다가, 비장(秘藏)된 '해인(海印)'이 발견되자 휴대(携帶)하고 행방불명(行方不明)되었다는 비화(秘話)도 있다. 그 해인은 전광(電光)과 같은 방사능(放射能)의 소유자(所有者)라는 비화일설(秘話一說)도 전해 온다.

여하튼 음양학적(陰陽學的) 무기 발전사를 본다면 … 그다음은 '화극금(火克金)'으로 화(火)의 무기(武器)가 발명된 것이 화약폭탄(火藥爆彈)인 것이다. 인제는 '수극금(水克金)'의 수(水)의 무기가 발명될 모양이니, 수뇌(水雷) 같은 것이 아니면 수력전기(水力電氣)로 발명될 전화기(電火器)가 아닐 것인가? 이로써 해인(海印) 일설(一說)도 허무맹랑한 일로만 돌려버릴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신무기(新武器) 발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

최수정(崔守正), 『정감록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해방서림, 1948)

위의 견해에서 드러나듯이 해인에 관한 이야기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재해석되면서 다양한 믿음을 유발하고 있다. 『정감록』의 말세와 관련된 내용을 1945년 8월에 일어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참상과 결부시켜 해석한 다음, 해인사에 비장되었던 해인이 번갯불과 같은 방사능을 가진 물건이 아닐까 하는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나아가 최수정은 화학폭탄과 수소폭탄의 발명을 예견한 다음, 해인이 미래의 신무기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한다.

증산교(甑山教)의 해인신앙

증산이 주장한 말세의 병겁

증산교에서는 말세(末世)에 발생할 병겁(病劫)에 대비하는 신비로운 보물인 의통(醫統)과 해인(海印)에 대한 신앙이 있다. 1911년 고판례(高判禮, 1880 - 1935)에 의해 선도교(仙道教)가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증산을 신앙 대상으로 삼는 증산교단은 약 140여 개 교파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전체 증산교단을 총칭하여 증산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먼저 증산교에서 이야기되는 병겁에 대해 알아본 다음, 의통과 해인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글에서는 『대순전경(大巡典經)』 6판(1965)을 인용했다. 증산교의 경전 성립의 역사에 대해서는 김탁의 「증산교의 교리체계화 과정」(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을 참고하면 된다.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 - 1909)은 현재의 이 천지가 생겨난 이후로 인류가 겪게 될 전무후무한 대병(大病)을 예언하였다. 이 질병은 "온 세상을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할 병겁"(5장 33절), "괴병(怪病)"(5장 34절), "급살병(急殺病)"(5장 35절), "괴이한 병"(4장 82절)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증산은 "병은 제 몸에서 스스로 나온다.〈병자기이발(病自己而發)〉"(4장 98절)라고 했으며, "인류가 병독(病毒)에 걸렸다."(4장 95절)라고 진단했다.

증산은 자신이 지은 『현무경(玄武經)』과 후대에 그의 행적을 기록한 종교적 경전인 『대순전경』 4장 129절의 「병세문(病勢文)」에서 병의 종류를 '대병(大病)'과 '소병(小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산은 이러한 두 종류의 병이 모두 무도(無道)에서 나온다고 규정한다.

무도(無道)의 구체적인 내용은 "망기부자무도(忘其父者無道), 망기군자무도(忘其君者無道), 망기사자무도(忘其師者無道). 세무충(世無忠), 세무효(世無孝), 세무열(世無烈), 시고(是故) 천하개병(天下皆病)."이다. 따라서 병겁의 원인은 인류가 참다운 도(道)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산은 "대인대의(大仁大義), 무병(無病)."이라고 덧붙였다.

증산이 예언한 병겁의 진행 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순전경』의 기록을 살펴보자.

"창생이 큰 죄를 지은 자는 천벌(天罰)을 받고, 작은 죄를 지은 자는 신벌(神罰) 혹은 인벌(人罰)을 받느니라."(6장 59절)라는 증산의 말에 따르면, 병겁은 인류의 죄를 천(天) 또는 신(神)이 응징하는 형태로 이해된다.

이러한 견해는 증산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심리(審理)를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느니라."(4장 1절)라는 말과 "귀신(鬼神)은 천리(天理)의 지극함이니, 공사(公事)를 행할 때는 반드시 귀신과 더불어 판단하노라."(4장 23절)라는 말에 의해 뒷받침된다.

나아가 증산은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감(臨監)하여 마음에 먹줄을 잡혀 사정(邪正)을 감정하여 번갯불에 달리리니,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기운이 돌 때에 쓸개가 터지고 뼈마디가 튀어나오리라. 운수는 좋건마는 목 넘기기가 어려우리라."(5장 15절)라고 주장했다.

바로 이 구절의 "기운이 돌 때"가 병겁이 돌 때의 상황을 표현할 말이며, "신명들이 사람의 사정(邪正)을 감정한다."라는 말은 신적(神的)인 존재들이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여 응징하는 일을 가리킨다.

또 "이렇게 허약한 무리들이 일을 재촉하느냐? 육정육갑(六丁六甲)을 쓸어들일 때는 살아날 자가 적으리라."(4장 15절)라는 증산의 말은, 병겁이 신장(神將)의 휘하 신병(神兵)들인 육정육갑 신명들에 의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해석된다.

증산 상제님 어진

신장에 대해서는 "48장(將)을 늘여 세우고 옥추문(玉樞門)을 열 때는 정신 차리기 어려우리라."(3장 100절)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근거하여 옥추문이라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장(神將)과 신병(神兵)들이 사람들이 행한 죄에 대해 응징하는 것이 병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증산이 "천하 창생이 진멸지경(殄滅之境)에 박도(迫到)하였는데"(5장 36절)라고 말할 정도로 병겁은 엄청난 대파국의 상황일 것이며, 우주의 주재자로 믿어지는 증산이 스스로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하여도 전부 다 건져 살리기는 어려우니 어찌 원통치 않으리오?"라고 말하고 슬피 울 정도였다. 이처럼 증산이 원통히 여길 정도로, 병겁은 증산의 권능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업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된다.

또 증산은 "천하의 병을 가진 자는 천하의 약을 사용해야 나을 수 있는데〈유천하지병자(有天下之病者), 용천하지약(用天下之藥), 궐병내유(厥病乃愈).〉, 천지도술약국이 전주(全州) 동곡(銅谷)에 있고 그곳에서 생사를 판단한다.〈원형리정(元亨利貞). 봉천지도술약국(奉天地道術藥局), 재전주동곡(在全州銅谷), 생사판단(生死判斷).〉"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증산은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는 천하의 생기(生氣)가 있지만, 천하의 대세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천하의 사기(死氣)가 있을 것이다.〈지천하지세자(知天下之勢者), 유천하지생기(有天下之生氣). 암천하지병자(暗天下之勢者), 유천하지사기(有天下之死氣).〉"라고 경고했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17회》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 미륵여래(彌勒如來)께서 감로(甘露)의 비를 내리시어 일체 중생의 미혹(迷惑)과 번뇌(煩惱)의 불꽃을 다 멸하신다 …

〈열반경 권 24 (涅槃經 卷 二十四)〉

未來世 佛出現之時
미래세 불출현지시
미래세에 미륵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는

國土所有 一切衆生 得壽命長
국토소유 일체중생 득수명장
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이 긴 수명을 얻으며

有勢力獲大神通 土地所有純七寶
유세력획대신통 토지소유순칠보
큰 힘과 큰 신통력을 얻으며 토지가 순칠보로 된다.

衆生富足 所欲自恣 遠離貪淫瞋恚痴
중생부족 소욕자자 원이탐음진에치
중생은 부유하고 풍족하며 욕심을 스스로 버리며 탐욕, 음욕, 성내고 어리석음을 버리며

常有花樹果樹香水其中
상유화수과수향수기중
항상 꽃나무와 과실나무와 향나무가 있고

衆生悉得淸淨上妙音聲 常共和合
중생실득청정상묘음성 상공화합
중생이 다 청정하고 묘한 음성을 얻으며 항상 서로 화합한다

土地平和掌 無沙礫石之屬
토지평화장 무사력석지소
토지가 평평하여 손바닥과 같고 모래나 자갈 따위가 없으며

其心平等 共修習大慈悲 得一子地
기심평등 공수습대자비 득일자지
그 마음이 평등하며 함께 대자비를 닦아서 한 형제의 국토가 된다.

一切衆生共之 是名菩薩修淨佛土
일체중생공지 시명보살수정불토
모든 중생이 다 같음이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수행하는 불국토라 한다.

개운조사께서
도장산 심원사(道藏山 深源寺)에서 지리산으로 가실 때
손가락으로 바위에 쓴 글씨 "洞天(동천)"

昔所不得而今得之
석소부득이금득지
옛적에 얻지 못한 것을 이제 얻고

昔所不見而今見之
석소불견이금견지
옛적에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보며

昔所不聞而今聞之
석소불문이금문지
옛적에 듣지 못하던 것을 이제 듣고

昔所不到而今到之
석소부도이금도지
옛적에 이르지 못하던 것을 이제 이르게 되고

昔所不知而今知之
석소부지이금지지
옛적에 알지 못하던 것을 이제 안다.

〈열반경 권 5 (涅槃經 卷 五)〉

如來發明 世出世法
여래발명 세출세법
여래께서는 세상에 빛을 발하여 밝혀 줄 법(法)을 들고 나오시는데

知其本人 隨所緣出
지기본인 수소연출
그 근본된 원인을 따라 인연이 나타나는 것을 다 아신다.

如是乃至 恒沙界內 一滴之雨 亦知頭數 여시내지 항사계내 일적지우 역지두수
말하자면 이와 같다. 항하사(恒河沙) 세계의 한 방울 빗방울과 그 수효까지도 다 아신다.

現前種種 松直棘曲 鵠白烏黑 皆了元由 현전종종 송직극곡 곡백오흑 개료원유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 소나무가 곧고 가시나무가 구부러졌으며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가 검은 그 근본적인 그 이치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너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때를 봐야 한다고 하였다.

分身遍滿一切刹 放淨光明除世闇
분신편만일체찰 방정광명제세암
몸을 나누어서 이 우주에 가득차게 하시며, 맑은 빛의 광명을 내보내시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제거하신다.

一念分身遍十方 霔甘露雨滅煩惱
일념분신편시방 주감로우멸번뇌
한 생각하는 가운데 분신이 되어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감로의 비를 내리셔서 번뇌의 불을 끈다.

번뇌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번뇌다. 그 모든 망상, 모든 마귀를 다 멸해서 누구든지 부처를 만드신다.

一切動心憶想分別
일체동심억상분별
일체 중생의 마음 움직이는 것이나 생각하는 상을 일일이 다 분별하신다.

〈열반경 권 2 (涅槃經 卷 二)〉

不可思議億劫中 導世明師難一遇
불가사의억겁중 도세명사난일우
무한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세상을 인도하는 밝은 스승을 한 번 만나기 어려운데

猶如大海中 盲龜遇浮孔 佛値世亦難 유여대해중 맹귀우부공 불치세역난
비유하자면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눈먼 거북이가 떠있는 나뭇구멍을 만나기 어렵듯이 부처님 만나기가 역시 그처럼 어렵다.

불경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눈먼 거북이가 바다 밑에서 천년을 사는데 백 년에 한 번씩 바다 위에 잠깐 쉬러 나온다고 한다. 그 눈먼 거북이가 구멍이 뚫린 나무토막을 만나야 그 위에 올라가 편안히 쉴 수 있지만 나무토막을 못 만나면 쉬지도 못하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바다는 고해(苦海)를 뜻하고 눈먼 거북이는 진리에 눈뜨지 못한 모든 중생을 뜻한다. 중생들의 삶이 마치 이 눈먼 거북이와 같다는 말이다. 욕망에 이끌려 망망한 이 고해(苦海)의 바다를 헤엄치며 고달프게 살다가 부처님을 못 만나면 다시 고해바다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인생을 뼈저리게 다시 돌이켜 보게 하는 말씀이다.

(계속)*